



■ 노관택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

취재_홍보학술실 김 성 환 실장

“회원병원 모두 한국 병원계
위상 제고 위해,
2007 IHF 서울총회의
성공적 개최 적극 협조해야”

29대 병원협회장

노관택 명예회장은 1998년 4월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대한병원협회 제29대 회장을 역임했다.

노 회장이 병원협회장을 맡아 회장직무를 시작한 1998년은 한국인들이라면 그 누구도 결코 잊을 수 없는, 우리나라 경제를 최대의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었던 IMF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.

이 IMF 사태는 그 동안 웬만한 위기로는 좀처럼 흔들림이 없었던 병원계를 그 근원부터 흔들어댄 대재앙의 서막이었다. 이 사태 이후 의약분업 시행 등과 맞물려 병원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됐고, 이를 견디다 못해 도산하는 병원들의 비율이 10%를 넘어섰다. 그런가하면 비록 도산은 하지 않았더라도 도산의 위기에 직면한 병원들의 수는 이미 도산한 병원의 몇 배에 이르렀다. 이런 어려운 시기에 병원협회는 예기치 않은 사태를 맞게 되었다. 경리직원이 협회 돈을 갖

고 도주하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. 이로 인해 병원협회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.

노 회장은 IMF로 인한 회원병원들의 엄청난 경영난과 한 협회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야기된 재정난을 끌어안고 회장의 직무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. 이런 상황에서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당시의 노 회장의 담담하고 임담한 심중은 어는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.

“병원협회장을 맡아 첫 번째로 직면하게 된 어려움은 당장 협회직원들의 봉급을 줄 돈이 없었던 일입니다. 협회직원의 횡령으로 예산에 큰 공백이 생긴데다가 내가 회장에 취임한 시기가 회비가 들어오는 때가 아니어서 당장 필요한 사업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 이 일로 노심초사하는 내 모습이 안타까

있던지 한 병원장님이 돈을 빌려주어 제 날짜에 직원 봉급을 지급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긴 했지만, 지금 생각해 봐도 참으로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협회 사무국의 몇몇 주요 임직원들이 경리직원 횡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 함으로써 업무공백까지 겹치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. 이런 사태는 만사 제쳐놓고 매일 협회로 출근하여 업무를 챙기고, 결원이 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을 영입하여 업무를 맡김으로써 곧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아마도 역대 병원협회장들 가운데 나같이 큰 어려움 속에서 회장직무를 시작하고, 또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며 회장직을 수행한 회장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”

당시의 병원협회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난감한 상황이었는지를 단적으로 알게 해 주는 노 회장의 이야기다.

“그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잊지 못하고, 앞으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은 IMF로 인해 병원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회원병원들이 협회가 겪는 어려움을 좌시할 수 없다며 앞다투어 연회비를 내주어 한숨을 돌릴 수 있었던 일입니다. 그 당시 도움을 주셨던 모든 병원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.”

노 회장은 IMF로 인한 비상시국을 타개하고, 협회의 어려운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기에 연회비를 납부해 준 회원병원들의 마음에 보답이라도 하듯 다각적인 방법으로 협회의 비용지출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고, 그 결과 적지 않은 실효를 거두기도 했다.

그러나 협회 일로 인한 노 회장의 심적 부담은 그에 그치지 않고 의약분업으로까지 이어진다.

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정부 주도의 의약분업 시행에 참여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.

그런데 막상 조인식에, 이제는 고인이 된 당시 유성희 의사협회장이 주위의 강압(?)에 견디다 못해 서명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병원협회로서는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. 의약분업의 최우선 이해당사자인 병원계가 의약분업 조인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데다 이 조인으로 인해 병원들은 그 동안 운영해 오던 외래 조제실을 폐쇄할 수 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.

병원협회는 ‘의사가 처방하고, 약사가 조제하는’ 원칙이 의약분업 이전부터 잘 지켜져 오던 병원들에 대해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외래조제를 중지시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한데 대해 크게 반발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의협과 약사회 등 관련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세에 밀려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.

노 회장은 “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들이고 그 다음이 병원”이라면서 “분업 시행 이전까지만 해도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은 후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원내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받을 수 있었으나 분업이후엔 가까운 곳의 약국을 놓아두고 멀리 외부에 나가 이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 조제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늘어난 비용부담을 동시에 떠안아





야 하는 피해를 보게 됐고, 병원들은 외래조제실 폐쇄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호소를 감수해야 했으며 아울러 수익감소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”고 설명했다.

“의약분업을 이해당사자인 병원협회를 배제시킨 채 의사협회와 약사회간의 서명만으로 시행한다는 것은,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생각은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당시의 조인식이 이해관계가 맞는 단체, 그리고 어떻게든 분업시행을 성사시켜야만 했던 정부간에 이루어진 ‘야합’이었다는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 없습니다.”

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파상적으로 밀려오던 중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도 있었다. 우선 의료기관 서비스평가를 독립기구를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정부 의도를 국회 법사위에서 차단할 수 있었고, 만약 성사가 되었다면 회원병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을 의약품물류센터의 설립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.

그런가하면 전공의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국을 몇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공동시험을 시행하여 안정된

전공의시험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이 노 회장 임기 동안 얻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.

참으로 마음고생 많았던 병원협회장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노관택 명예회장은 요즘 경기도 파주에 있는 금촌의료원 이비인후과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환자들을 돌보며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고 있다.

노 회장이 이 병원에서 거의 무료봉사 형태로 일하게 된 것은 요즘 젊은 의사들이 지방병원에서 근무하기를 꺼리고, 또 의사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 일부 임상과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공백상태로 있어 이 병원을 찾았던 환자들이 먼 거리의 다른 병원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을 안타깝게 여긴 박윤형 경기도립의료원장의 간절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.

이 의료봉사에 대해 노 회장은 “의사는 자신의 처지에 따라 진료, 연구 및 교육, 사회봉사의 세 길 가운데 하나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료나 연구·교육에 비해 사회봉사를 소홀히 해 온 만큼 지금 바로 소홀히 한 그 일을 하고 있을 따름”이라고 말한다.

대한병원협회장, 서울대학병원장, 한림대의료원장 등 모든 화려하고 명예로운 사회활동을 뒤로 한 채 이제 사회봉사에 열의를 불태우고 있는 노 회장은 자신이 병원협회장 임기를 마친 후 협회가 잘 운영되고 날로 발전하고 있는 데 감사해 하고 있다는 말로서 병원협회에 대한, 아직도 식지 않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. 이어 노 회장은 “협회가 대학병원·중소병원 그 어느 쪽에 치우침이 없이 형평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무엇보다도 오는 2007년에 열리는 세계병원연맹(IHF) 서울총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한국병원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회원병원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협회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해야 한다”는 점을 강조하며 말을 맺었다. **KHA**